

광주 첨단3지구, 대기업 투자 '술술'...AI산업 중심축 튼다

광주 북부와 광산구, 전남 장성군 경계에 조성 중인 첨단3지구가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AI연구개발특구와 AI기업유치, 첨단 산업단지가 계획된 데다, 향후 데이터센터 설립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대기업 투자와 첨단 산업 프로젝트가 잇따라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 북부와 광산구, 전남 장성군 일대에 걸쳐 조성되는 첨단3지구는 약 362만㎡ 규모 일반산업단지, 광주연구개발특구 핵심 축 가운데 하나다. 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유럽 최대 공기조화 업체인 플렉트그룹 인수를 완료하고 첫 국내 생산라인을 광주 첨단산단 내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국가 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존 삼성전자 가전 생산라인도 갖추고 있어 플렉트 생산라인 입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플렉트 그룹 생산라인 입지는 국가 AI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첨단3지구와 첨단산업단지를 두고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플렉트의 한국 생산라인 건립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며 "플렉트의 한국



삼성전자, 플렉트 공조 생산라인 국내 첫 건립 추진 SK그룹·오픈AI 협력 데이터센터 후보지로 거론 AI산업 인프라 집적...미래가치 부각 성장 거점 기대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광주시에 생산라인 건립을 검토 중이고 인력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첨단3지구는 AI 인프라 핵심 입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SK그룹과 OpenAI 합작 서남권 데이터센터 부지 후보지로 첨단3지구가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오픈AI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를 개발한 글로벌 기업으로 최근 초대형 AI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남권 데이터센터 역시 대규모 GPU(그래픽처리장치) 기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첨단3지구가 AI 산업 중심 거점으로 대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역시 지역 발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과 함께 연간 5조원, 최대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AI·에너지·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첨단3지구의 산업 거점 가치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첨단3지구는 국가 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데이터센터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첨단 3지구 AI 데이터센터 전경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조감도

전남지역 1호 데이터센터로 최대 60MW 규모의 장성 파인데이터센터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오는 2029년에는 장성군 남면 일원에 국립심뇌혈관센터도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광주 도심과 가까워 생활 인프라와 인제 확보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교육과 산업을 잇는 인재 양성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다.

첨단3지구 내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영재고가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며 국가 AI데이터센터 등 첨단3지구 내 AI 인프라를 교육 과정에 활용할 수 있어 AI 인재 육성에 기대된다.

주변 산업벨트와의 연계성도 뛰어나다. 첨단3지구 반경 7km 내에는 광주첨단과학기술산업단지 등 6개 대형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산업 간 연계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첨단3지구는 경제자유구역과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췄다는 평가다.

첨단3지구 조성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약 1조703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6500여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인근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되면서 추가적인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이 밖에도 첨단3지구는 광주시와 전남

도를 연결하는 교통축으로 산업단지 간 연계와 물류 이동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3호선, 빛고을대로 등 주요 도로망을 통해 광역 이동이 편리하고 빛고을대로 연결 진입 도로 신설과 도로망 확충도 추진되면서 교통 여건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이 맞물리면서 첨단3지구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와 연구개발 인프라, 산업단지가 결합된 구조로 성장 기반이 건설한 지역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기업 IP 경쟁력 키운다...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

광주지역 유망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비약 다가선다.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는 최근 '2026년 광주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정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지식재산체와 광주시가 지원하고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해 3년간 지식재산 기반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신규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는 ㈜첨단랩, ㈜씨앗, ㈜아이티스케이, ㈜파인트코리아, 인아헬스케어, ㈜엔153바이오테크, ㈜원인터네셔널, ㈜아이시스, ㈜티디엠 등 9개사가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세라믹 소재와 비전 AI, 의료기기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로 평가받고 있다. 선정 기업들은 앞으로 3년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IP 경영 로드맵을 지원받게 된다.

또 특허 분석과 해외 특허 출원·등록,

발명진흥회, 스타기업 9개사 선정...3년간 맞춤형 지원
특허·브랜드·해외권리화 뒷받침...수출·고용 성장 기대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는 최근 '2026년 광주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정식'을 개최했다.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략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정서 수여와 함께 유관기관 지원사업 설명회도 진행됐다.

특히 ㈜티디엠은 지식재산 경영을 통한 성장 사례를 발표하며 신규 선정 기업들과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사업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1~3년차 26개 기업은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전략 과제 24건과 해외 권리와 91건 등을 지원받았으며, 그 결과 매출은 104%, 수출은 125%, 고용은 108% 증가했다.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선정 기업들이 세계적인 IP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광주경총, 5월 금요일포럼서 AI·심리·에너지 해법 모색

권찬호·김경일·임채영 초청
경영 전략 미래 산업 조망

광주경총자총협회(회장 양진석)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기업 대응 전략과 미래 산업 변화를 주제로 한 5월 금요일포럼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광주경총은 5월 한 달간 교육·심리·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잇따라 초청해 AI 기반 경영 혁신과 조직 변화, 미래 에너지 산업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5일 열리는 제172호 포럼에서는 권찬호 미래교육센터 관장이 '집단지성과 협력, 그리고 AI 시대의 경영리더십'을 주제



권찬호 김경일 임채영

로 강연한다. 권 관장은 독일 라이프치히대 교육학과 교편교수와 상명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협력의 원리', '집단지성의 원리' 등의 저서를 통해 협업과 조직 혁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2일에는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마음의 지혜, 미래 사회의 역량'을 주제로 연단에 오른다.

김 교수는 게임문화재단 이사장과 중앙심리부검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냈으며 인간 심리와 조직 소통, 공감 역량 등을 주제로 대중 강연과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9일에는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이 'AI 시대, 원자력 산업의 게임체인저 SMR'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임 본부장은 KAIS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기금 운영위원 등을 맡으며 차세대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산업 전략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남일보 창사 31주년 기념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초광역 행정통합 포럼

2026. 05.11. (월) 14:00 ~ 16:00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1호관 350호(CBA홀)

주최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지역정책학회

주관 광남일보 드림투데이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문의

시간

내용

Registration
13:30 ~ 14:00

참석자 등록

- 개회사: 배정환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장)
- 환영사: 나주몽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장)
- 축사: 황광명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 축사: 이순배 (광남일보 사장)
- 축사: 조인철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황준현 교수

Session 1
14:10 ~ 14:40

초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체제 재설계 정책 과제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Session 2
14:40 ~ 15:10

행정통합 이후의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제언
김승년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연구실장)



김승년 교수

종합토론

- 장장: 배정환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장)
- 조기선 (광주CBS 대표) 김동찬 (광주경총자총협회상임부회장)
- 신우진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준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장)
- 황성웅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참가자 전원

Closing
16:00

포럼종료